

정보화시대의 지식구조: 수잔 스트레인지의 개념화를 넘어서

김상배
서울대학교

▣ 논문요약 ▣

영국의 국제정치학자, 수잔 스트레인지가 제시한 지식구조의 개념은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국제정치학적 의제의 가시적 구도 안에 편입시킴으로써 최근 부상하고 있는 정보·기술·지식 변수의 상대적 독립성과 그 구조적 권력의 합의를 탐구하는 학술적 논의의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글은 스트레인지의 지식구조와 구조적 권력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고 있는 지식구조의 아키텍처와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개념적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이 글은 정보화시대의 지식구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험적 사례로서 글로벌

정보산업에서 기술표준·지적재산권·문화콘텐츠 등을 둘러싸고 작동하는 지식구조의 실체와 내용을 검토하였다. 특히 이 글은 정보산업의 지식구조에서 미국의 주도 하에 생성되는 구조적 권력의 다층적 메커니즘을 개념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더 나아가 최근 동아시아의 정보산업과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대항담론의 가능성에도 주목하였다.

* 주제어: 정보화, 세계정치, 지식구조,
구조적 권력, 정보산업

I. 머리말

최근 들어 정보화의 진전은 국내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전반에 걸쳐서도 다층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정보화가 세계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논제 중의 하나는 아마도 권리이동(power shift)일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시대의 권리이동에 대한 논의 중에서도 특히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주장을 들라면 다음의 두 가지를 빼 놓을 수 없다. 그 하나는 세계정치 권력의 주요 원천이 무기나 군대, 자본과 상품 등과 같은 물질적 자원으로부터 정보·기술·지식 등과 같은 비물질적인 지식자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Toffler 1990). 다른 하나는 세계정치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과 관련된 것인데, 행위자간의 관계적 맥락에서 직접적인 강제나 명령의 방식을 통해서 작동하는 경성권력(hard power)보다는 제도·문화의 맥락을 경유하여 간접적인 설득과 유도의 방식을 통해서 작동하는 연성권력(soft power)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Nye 1990: 2004).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은 대체적으로 평면적인 이행론의 형태를 띠거나 아니면 불명료한 정책개념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물적 기반과 작동 메커니즘의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적 변형을 경험하고 있는 세계정치 권력의 실체를 학술개념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¹⁾

실제로 현재 국제정치학 분야를 들려보면, 정보화로 인한 권력기반의 변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정치의 구조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지식권력의 실체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대체적으로 물질주의적(materialist) 시각에 입각해 있는 전통적 국제정치이론의 논의에서 정보화시대의 권력이동은 기껏해야 새롭게 등장한 지식자원을 둘러싼 행위자 수준의 과정적 변화로 묘사되고, 이로부터 세계정치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논의는 암묵적으로 유추되는 정도가 고작이다. 정보화의 맥락에서 지식과 권력의 관계를 탐구하는 철학이나 사회과학 일반의 진전된 논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국제정치학 분야의 이러한 개념적 빈곤은 국제정치학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차원의 권력이동에 대한 논의를, 그저 병렬적으로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라는 변수를 매개로 하여 하나의 입체적인 분석틀 안에 엮어냄으로써 지식과 권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세계정치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연구가 아쉽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볼 때 영국의 국제정치학자, 수잔 스트레인지(Susan Strange)가 제시한 지식구조(knowledge structure)의 개념은, 비록 초보적이지만, 지식과 권력에 대한 의미있는 국제정치학적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스트레인지는 1988년에 초판을 내고 1994년 재판을 낸 *States and Markets*이라는 저서에서 지식구조를 “어떠한 지식이 발견되고 어떻게 저장되며 누가 어떠한 수단을 통해 누구와 어떠한 조건 하에서 그러한 지식을 소통하는가를 결정하는 구조”로서 정의하고 있다(Strange 1994, 121). 스트레인지에 의하면, 이러한 지식구조는 유사 아래 존재해 왔으며, 중세와 근대를 거쳐서 최근의 정보화를 계기로 하여 더욱 더 교묘한 형태의 구조적 권력을 발휘하면서 세계정치의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인지의 개념화가 주는 의미는 기존의 ‘군사안보’나 ‘정치경제’ 영역의 구조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범주로서 지식구조의 위상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구조들에도 역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태적 범주로서 지식구조를 설정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스트레인지의 지식구조 개념은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국제정치학적 의제의 가시적 구도 안에 편입시킴으로써 정보화시대의 지식구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세계정치의 동학을 살펴보는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²⁾

그러나 스트레인지의 지식구조에 대한 논의도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지식구조에 대한 스트레인지의 연구는 근대 지식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그치고 있으며, 정작 정보·기술·지식이 키워드로 등장한 정보화시대의 경험적 사례를 본격적으로 담아내지 못

1) 정보화시대의 세계정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권력이동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세계정치의 주요 행위자인 국민국가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논의의 범위를 전자의 권력이동에 대한 논의에 국한시켰다. 후자의 국민국가의 변화에 대해서는 김상배(2001b)와 김상배(2003)를 참조할 것.

2) 스트레인지가 제시한 지식구조의 개념적 공헌을 인정하고 이를 이어받는 연구로는 Russell(1997), Porter(1999)가 있으며, 이외에도 스트레인지 사후 기념 논문집인 Lawton, Rosenau and Verdun, eds.(2000)에 실린 연구논문들, 특히 Mytelka(2000)과 Tooze(2000) 등을 들 수 있다.

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게다가 스트레인지의 지식구조 개념은 지식구조의 아키텍처와 그 변화의 동인(動因)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정보화로 인한 지식구조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도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스트레인지가 지식구조의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용하고 있는 구조적 권력의 개념도 관계적 차원을 넘어서 작동하는 권력의 동학을 전체적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약점을 안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객관적’ 변수를 통해서 형체가 파악되는 안보구조·금융구조·생산구조 등과는 달리 ‘간주관적(inter-subjective)’ 변수를 둘러싸고 구성되는 지식구조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스트레인지의 논의에 대한 개념적 보완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스트레인지가 제기한 지식구조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보화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지식구조의 실체와 내용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는 정보화시대 지식구조의 아키텍처를 밝히기 위해서 스트레인지가 제시한 지식구조의 개념적 층위에 대한 논의를 보완함으로써 지식구조의 변화요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제정치이론에서 벌여온 구조적 권력에 대한 논의를 원용하여 스트레인지의 권력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구조에서 작동하는 권력 메커니즘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제4장에서는 정보화시대 지식구조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험적 사례로서 정보산업에서 형성되고 있는 지식구조를 살펴보았다. 특히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문화콘텐츠 등의 사례에 주목하여 정보산업 분야 지식구조에서 작동하는 구조적 권력의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하였다. 결론에서는 이 글의 의미와 한계를 간략히 언급하고 향후 정보화시대 지식구조의 변화를 전망하는 데 고려해야 할 점을 지적하였다.

II. 지식구조의 개념과 아키텍처

스트레인지는 세계정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범주로서 안보구조·금융구조·생산구조·지식구조 등의 네 가지를 상정한다. 이들 네 개의 구조는 존재론적으로는 상호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세계정치의 권력원천으로서 작동한다. 지식구조는 이러한 네 가지 구조 중의 하나로서 여타 세 가지 구조로부터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진 범주로서 설정된다. 스트레인지에 의하면, 지식구조는 지식의 생산과 저장 및 유통을 결정하는 구조이고, 이러한 과정을 매개하는 수단과 조건을 통제하는 구조이다. 이렇게 개념화된 지식구조에서 권력은 일차적으로 지식자원의 생산과 그러한 지식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여타 구조들의 경우와는 달리 지식구조에서 특히 문제시되는 것은 비강제적인 설득과 자발적인 동의의 과정을 통해서 창출되는 권력이다. 지식구조에서 단순히 객관적 변수로서 개념화되는 지식자원이 아닌 가치와 신념이 배태되어 있는 지식의 공유가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Strange 1994, 122).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이러한 지식구조와 여기에서 발생하는 권력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홀하

게 취급되어 왔다. 스트레인지도 지적하고 있듯이, 그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지식구조의 개념이 신념과 가치, 도덕적 규범과 원칙, 지식이나 인식, 그리고 이러한 추상적 관념과 지식들이 소통되는 채널 등과 같이 비가시적인 대상에서 비롯되는 권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과 권력에 대한 논의에서는 지식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력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누가 지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지식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주관적 또는 간주관적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적 실체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분포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상적인 상식의 차원에서는 누구나 지식이 권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지식권력의 실체와 작동 메커니즘을 사회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로서 이해되어 온 것이다 (Strange 1994, 119-200).

스트레인지는 역사상 존재했던 지식구조의 구체적 사례로서 유럽의 중세 기독교국가 (Christendom)와 근대 과학국가(scientific state)를 들고 있다. 먼저, 중세 기독교국가에서는 인간의 영적인 구원과 관련된 종교적 지식이 가장 가치있는 지식으로 취급되었으며, 이러한 종교적 지식에 근거해서 여타 세속적 지식들이 정당화되는 상당히 위계적인 지식구조가 작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지식을 독점하고 있던 교회가 막대한 권력을 보유했던 것은 당연한데, 이러한 교회의 권력은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성직자가 군주나 상인 및 장인들의 세속적 행위마저도 통제하기에 이른다. 한편 중세 지식구조에서 지식의 전수는 라틴어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성경 연구나 소양(literacy) 교육 등을 통제함으로써 기독교국가의 지식구조는 방어되고 강화되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교회의 권위에 대항하는 지식활동에 대해서 종교적 이단이나 마녀사냥이라는 죄목으로 매우 단호하게 대처하였던 사례들도 이해할 수 있다 (Strange 1994, 123-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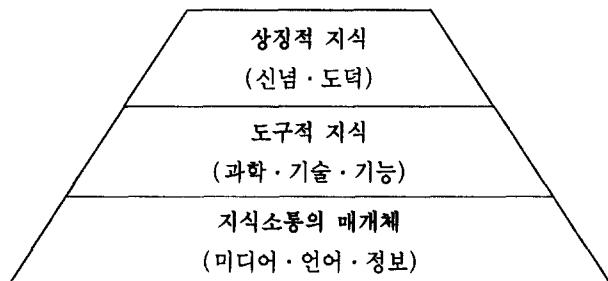
이러한 중세의 지식구조는 근대 초기에 이르러 계몽주의와 르네상스의 등장에 의해서 도전받고 해체되기에 이른다. 종교개혁의 과정을 통해서 등장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사상도 중세교회가 독점하고 있던 지식구조의 붕괴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30년 전쟁의 결과로서 1648년 체결된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전후하여 중세 지식구조 하에서 군주들에게 가해졌던 제약은 사실상 종말을 고하게 되고, 근대 국민국가 중심의 새로운 지식구조가 등장하게 된다. 예를 들어, 17세기경에 이르면 유럽의 두 선진국인 프랑스와 독일은 부국강병의 달성이라는 목적 하에 과학적 지식을 탐구하는 국가적 사업을 벌이기에 이른다. 스트레인지는 이렇게 17세기로부터 19세기에 걸쳐서 지식구조를 장악하게 된 국가를 과학국가라고 부르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국가는 종전에는 교회가 관장했던 교육 분야에서의 권위를 획득하게 되고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서 지식생산 활동의 목적을 규정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체로서 등장하였다. 이제 모든 지식생산은 국가의 이익과 권력을 증진시킨다는 전제 하에서 명분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Strange 1994, 125-127).

최근 들어 과학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근대 지식구조가 변화하는 조짐들이 발견된다. 스트레인지도 앞서 발생했던 지식구조의 근대적 이행에 버금가는 변화가 정보화로 인해서 발생하

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스트레인저는 정보화로 인해서 근대적 지식구조가 변화하는 정도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정보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세계정치의 네 가지 구조 중에서 지식구조가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Strange 1994, 136). 정보화의 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980년대 말에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을 염두에 들 때, 스트레인저의 지식구조 개념화가 정보화의 충격에 대해서 둔감했던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이 글이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로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지식구조의 실체에 대한 개념적 작업이다. 다시 말해 스트레인저의 논의를 지난 10여 년의 기간에 연장·투영함으로써 지식구조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과 병행하여 스트레인저의 개념화 작업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적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식구조의 변화에 대한 엄밀한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식구조의 아카데처를 좀 더 분석적으로 밝혀볼 필요가 있다. 스트레인저 자신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지식구조의 개념에서는 적어도 <그림1>과 같은 세 가지의 개념적 층위가 문제시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림 1> 지식구조의 개념적 층위



우선 지식구조의 가장 상층부에는 신념이나 그로부터 도출되는 도덕적 관념이나 원칙 등과 같은 ‘상징적 지식(symbolic knowledge)’의 층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징적 지식의 층위는 성직자나 철학자들이 담당하는 영역으로서 종교적 지식 또는 ‘초월적 지식(transcendental knowledge)’의 생성이나 그 밖의 다양한 차원에서 행위를 제어하거나 정당화하는 신념체계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선호체계의 구성 및 재구성에 관련된다. 이러한 층위의 지식은 역사적으로 특정 행위자들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권위를 정당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여 왔다. 예를 들어, 상징적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공유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직자나 정치가 등과 같은 지배집단은 직접적인 강제의 메커니즘에 의존하지 않고도 설득과 동의의 과정을 통해서 피지배집단의 신념과 가치 및 선호체계를 변형시키는 권력을 행사해 왔다.

한편 지식구조에는 상징적 지식보다는 추상도가 낮은 종류의 지식이 점하는 층위가 존재하는데, 이는 ‘도구적 지식(instrumental knowledge)’이라고 부를 수 있는 층위이다(Russell 1997). 이

는 스트레인지가 ‘아는 것과 이해되었다고 인식되는 것’으로 개념화한 지식층위로서 과학기술과 같이 교육과 학습의 결과를 통해서 획득되는 전문지식의 영역이다(Strange 1994, 119). 이러한 도구적 지식의 층위는 다시 세 가지 하위층위로 구분해 볼 수 있다(Hart and Kim 2000; 김상배 2001a). 첫째는 과학자들이 다루는, ‘과학적 지식’으로서 사물을 인식하고 그 사물의 인과관계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식이다. 둘째는 기술자나 공학자들이 다루는 ‘기술적 지식’으로서 사물을 어떻게 만들고 실행하는지에 대한 ‘실용적 지식(useful knowledge)’이다. 마지막은 예술인이나 기능인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획득하는 ‘기능적 지식(craft knowledge)’으로서, 앞의 두 경우처럼 객관적으로 외재하는 지식이라기보다는 인간에 배태되어 인간을 통해서만 구현되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이다.

지식구조의 가장 하층위에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상징적 지식과 도구적 지식들이 소통되는 매개체(medium)의 층위이다. 이러한 지식소통의 매개체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펌웨어(firmware)³⁾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인쇄·활자 미디어, 음성·영상 미디어, 멀티미디어 등과 같이 지식의 시간적·공간적 전파를 가능케 하는 하드웨어 형태의 매개체를 들 수 있다(Strange 1994, 122). 둘째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매개체로서 상대방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간주관적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언어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Tooze 2000, 189). 끝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적 형태인데,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객관적인 형태로 가공·처리된 지식,’ 즉 정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수용자에 의해서 재구성되지 않고 그 자체로서만 존재한다면 결코 지식으로서 활용될 수 없지만, 역으로 이러한 정보가 전혀 없으면 지식의 재구성 자체가 아예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펌웨어 형태의 지식소통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구조의 개념적 층위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정보화로 인한 지식구조의 변화는 어떻게 설명되는가?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대한 연구의 성과들을 이 글의 취지에 맞추어 적용해 보면, 새로운 지식구조의 등장은 <그림 1>의 개념적 층위 중에서도 도구적 지식의 층위에서의 변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정보를 생산·처리·소통하는 기술적 지식, 즉 정보기술의 발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Castells 1997). 스트레인지 자신도 지식구조의 변화를 촉발하는 일차적 촉매제로서 기술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술의 변화에서부터 지식구조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분포와 행사방식의 변화가 유발된다고 보고 있다(Strange 1991, 38). 결국 기술의 변화는 지식구조의 변화를 촉발하고, 더 나아가 생산구조·금융구조·안보구조 등을 포함하는 세계 정치 전반의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적 동인(動因)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식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기술적 지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기존의 지식구조에서 기술의 혁신을 장악하는 측이 지식구조 자체에서 우위를 차지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세계정치 전반에서도 핵심적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Lawton et al. 2000, 9).⁴⁾

3) ‘펌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반도체와 같은 하드웨어이면서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내재하고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를 들 수 있다.

4) 그렇다면 지식구조 변화의 결정적 동인을 제공하는 기술변화 자체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기술변화의 중요

최근에 급진전되고 있는 정보화가 지식구조의 변화에 대한 논의와 일차적으로 접맥되는 대목은 바로 여기이다. 가장 좁은 의미에서 파악된 정보화의 개념은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정보·통신·커뮤니케이션 관련 산물들이 획기적으로 개발되고 널리 보급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인지의 표현을 빌자면, 정보화는 급속한 기술변화로 인해 세 가지 정보기술의 산물이 개발되고 확산되는 현상이다. 스트레인지는 그러한 세 분야로서 1) 많은 양의 정보를 값싸게 축적·저장·처리하는 기계적·전자적 수단으로서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의 개발과 확산, 2) 통신의 비용과 가용성을 크게 제고시킨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개발과 확산, 3) 인류의 의사소통 장벽을 제거할 가능성을 제시한 언어의 디지털화 등을 들고 있다(Strange 1994, 120).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원래 이러한 지식소통 매개체의 개발과 확산은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실현되었지만, 역으로 이러한 매개체를 활용하여 기술적 지식이 혁신되는 선순환의 관계가 형성 된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지식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보화란,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도구적 지식의 층위와 지식소통의 매개체 층위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현상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구적 지식에서 비롯된 변화가 궁극적으로 지식구조 전체의 변화를 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파급력이 지식소통 매개체의 층위에만 그쳐서는 아니 되며, 지식구조의 가장 상층부인 상징적 지식 층위의 변화를 수반하여야 한다. 스트레인지도 이를 지적하고 있는데, 기술변화가 항상 지식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오직 기술변화가 사회적으로 수용되어 기본적인 신념체계의 변화를 수반할 경우에만 지식구조의 변화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Strange 1994, 127). 따라서 현재 정보화에 의해서 야기되는 지식구조의 변화도, 앞서 언급한 도구적 지식과 지식소통 매개체의 변화와 더불어 가치와 신념체계 및 정체성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근대 지식구조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식구조의 등장으로 볼 수 없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요컨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고 있는 지식구조의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은 지식구조 아키텍처의 세 가지 층위 내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내용과 각 층위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III. 지식구조의 권력 메커니즘

스트레인지가 제시한 지식구조는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하는가? 지식구조의 아키텍처를 밝히는 작업만으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스트레인지가 제시하고 있는 구조적 권력의 개념은 안보·금융·생산 등의 구조뿐만 아니라 지식구조의 작동 메커니즘을 밝히는 중요한 개념적 단초를 제공한다. 스트레인지에 의하면, 세계

성을 강조하는 논리는 자칫 기술결정론의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기술은 그 자체가 독립변수라기보다는 사회적 맥락에서 구성되는 존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소위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에 대해서는 Mackenzie and Wajcman, eds.(1985)와 Bijker, Hughes and Pinch, eds.(1997)를 참조.

정치의 구조에서 기원하는 권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관계적 권력(*relational power*)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이라고 한다. 관계적 권력이란 전통적으로 현실주의이론이 상정하는 권력 개념으로서 세계정치의 어느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끔 만드는 권력을 의미한다.⁵⁾ 이에 비해 구조적 권력이란 행위자 수준의 상호작용 차원을 넘어서 작동하는 권력 개념으로서 행위자들을 에워싸고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결정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구조적 권력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력, 즉 국가간·개인간·기업간의 상호관계를 설정하는 틀을 형성하는 권리”이다(Strange 1994, 23-32).

이러한 스트레인지의 구조적 권력 개념은 세계정치의 다층적 구조에서 작동하는 권력을 파악하는 출발점으로서 그 유용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인지의 개념만으로는 권력 구조의 구체적인 작동 메커니즘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기는 다소 미흡하다. 다시 말해, 전통적으로 국제정치이론에서 상정하던 관계적 권력 이외의 범주를 모두 구조적 권력이라는 개념으로 뭉뚱그려서 처리하기에는 ‘비(非)관계적 권리’의 영역이 너무 넓고 그 작동 메커니즘이 너무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스테파노 구찌니(Stefano Guzzini)가 지적하고 있듯이, 스트레인지의 개념은 국제정치이론가들이 논의해온 구조적 권리의 개념이 세계정치의 구조를 파악하는 분석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개념적으로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Guzzini 1993: 2000).

행위자 수준의 전략적 상호작용에만 초점을 맞추는 신현실주의의 권력 개념을 넘어서는 가장 일반적인 논의는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 즉 ‘간접적인 제도적 권리’으로서 구조적 권력을 개념화하려는 시도이다. 스템페인 크래스너(Stephen Krasner)의 메타권력(*meta-power*) 개념은 바로 이러한 간접적이고 제도적 형태로 작동하는 구조적 권리의 대표적인 사례이다(Krasner 1985). 기존의 제도적 틀 안에서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능력인 관계적 권력과는 달리, 메타권력은 그 제도적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메타권력은 직접적인 대결을 벌이지 않고 오히려 그 대결이 벌어지는 ‘게임의 규칙’을 변화시킴으로써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려는 구조적 권리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크래스너는 이러한 메타권력의 개념을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s)의 분석에 적용하고 있는데, 메타권력은 국제레짐을 조작함으로서 많은 쟁점들이 협상단계에 이르기도 전에 결정되게 하는, 일종의 제약요인 또는 유발요인을 의미한다.⁶⁾

크래스너의 구조적 권리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은, 국제레짐에서 어젠다를

5) 전통적으로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기반을 두고 있는 권력 개념은 정치이론 분야에서 벌어졌던 ‘권력의 세 얼굴(the three faces of power)’에 대한 논쟁에서 권력의 첫 번째 측면에 해당된다. 이러한 권력관은 로버트 달(Robert Dahl)의 행태주의적 권력관에 기원을 둔다(Dahl 1957). 권력 논쟁에 대한 소개와 비판적 검토에 대해서는 Isaac(1987)을 참조.

6) 크래스너의 구조적 권리 개념은 ‘권력의 세 얼굴 논쟁’에서 권력의 두 번째 측면에 해당하는 비결정(*non-decision*)의 권리와 일맥상통한다(Bacharach and Baratz 1970). 이는 또한 신제도주의 정치경제학에서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가 상정하고 있는 ‘제도’의 권력적 함의와도 유사하다(Steinmo, Thelen and Longstreth, eds. 1992).

설정하고 규칙과 관행을 디자인하는 메타권력적 행위가 행위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행위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적인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스트레인지의 구조적 권력도 크래스너가 논하는 의도적인 메타권력 또는 간접적인 제도적 권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스트레인지의 구조적 권력은 안보·금융·생산·지식 등의 구조를 형성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작동하는 권력을 '구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행위자가 보유한 능력이 구조를 경유하여 간접적인 확산의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트레인지의 개념화가 국제정치이론에 기여한 부분은 구조적 권력의 '비의도적 측면'을 부각시킨 데에서 찾아져야 한다(Guzzini 2000, 62). 스트레인지의 구조적 권력 개념은 크래스너의 국제레짐과 같은 '법률상(de jure) 구조'를 경유하지 않더라도 행위자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실상(de facto)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의미한다. 실제로 구조적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행위자 수준에서의 각기 상이한 의도의 직접적 충돌을 전제로 하여 작동하는 것만은 아니다. 행위자가 체제 내에서 차지하는 존재적 위상이나 행위자의 비의도적 행위 등에서 파생되는 구조적 권력의 현상도 있을 수 있다. 스트레인지가 구조적 권력의 개념은 '행위의 의도'가 아니라 '행위의 효과'라는 관점에서 역으로 검증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Strange 1996, 17).⁷⁾

스트레인지의 구조적 권력 개념에 의하면, 상대방의 행위를 유인하고 제약하는 요인들은 체제(system)의 차원에서 창출되는 경향이 강하다. 다시 말해, 권력 메커니즘을 통해서 창출된 효과의 기원을 행위자의 의도가 탈색된 물질적·제도적 환경 자체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스트레인지의 구조적 권력은 체제 내적으로 디자인된 '비의도적 편향(non-intentional bias)'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의도적 편향은 시장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구조적 권력을 행사하는 자본의 작동 메커니즘과도 매우 유사하다. 세계정치에서 이러한 비의도적 편향은 어느 행위자가 세계체제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위상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메커니즘으로서 표현된다. 요컨대, 스트레인지의 구조적 권력은 애초에 특정한 편향을 체제 내에 교묘한 방식으로 배태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동원해내는 메커니즘을 창출함으로써 거기에서 비롯되는 비의도적 결과를 향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Guzzini 1993, 462-463).

스트레인지의 구조적 권력 개념은 영토적 경계를 넘어서는 초국가적 활동의 증대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는 세계정치의 권력 메커니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특히 스트레인지의 개념은 권력자원의 다원화와 권력주체의 다양화라는 맥락에서 발생하는 세계정치의 분산화를 포착하려는 시도이다. 다시 말해, 스트레인지의 구조적 권력 개념은, 세계화시대의 권력은 더 이상 국가 행위자의 군사적 능력을 유일한 원천으로 하여 생성되는 것이 아니며, '비국가 행위자'의 '비

7) 스트레인지의 권력관은 '권력의 세 얼굴' 논쟁에서 스티븐 루크(Steven Lukes)가 제기한 권력의 세 번째 측면과 유사한데, 루크는 이익의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전에 체제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배제되는 권력적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Lukes 1974). 이는 또한 신제도주의 정치경제학에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rational-choice institutionalism)에서 상정하고 있는 '제도'의 권력적 함의와도 유사하다(North 1990).

군사적 능력'으로부터도 권력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스트레인지의 인식에서 세계체제는 구체적인 영토성을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력적 의도의 정확한 기원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초국가적 제국(transnational empire)'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트레인지는 구조적 권력의 개념을 원용하여 국가 행위자에 의해서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의미있는 권력효과를 놓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던 것이다(Guzzini 2000, 62).

세계정치에서 행위의 비의도적인 효과를 지적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인지의 구조적 권력 개념은 지식과 권력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 여전히 '객관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인식론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Guzzini 1993: 458).⁸⁾ 로저 투즈(Roger Tooz)에 의하면, 스트레인지의 개념화는 소위 "근본적 '현실주의'(radical 'realist')"라고 부르는 인식론적 편향 때문에 새로운 국제정치학이 포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구조적 권력의 메커니즘을 놓치고 있다고 한다. 스트레인지의 개념화에서 지식구조의 이미지는 다분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구조로서 그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식구조를 '객관적' 구조로서 설정한다면 모든 세계정치 현상의 설명에 있어서 지식구조를 안보·금융·생산 등과 같은 여타 구조들에 반드시 선행하는 범주로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식이 먼저 개재되지 않고 안보·금융·생산 등과 관련된 인간의 행위가 발생할 수 없을 것임은 당연하다. 따라서 지식구조에 대한 '객관주의적' 이해만으로는 간주관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관념이나 가치 및 신념체계 등이 지식구조에서 발휘하는 권력적 함의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투즈가 제기하는 비판의 논지이다(Tooze 2000).

그렇다면 지식구조에서 관념이나 가치 및 신념체계가 어떻게 간주관적인 차원의 구조적 권력으로서 작동하는가를 이해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탈구조주의자(post-structuralist) 또는 성찰주의자(reflectivist)들이 제시하고 있는 '구성적 권력(constitutional power)'의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성적 권력은 관념형성(ideational)의 차원에서 상대방의 신념과 가치체계의 구성에 작용하는 권력이다. 구성적 권력은 간주관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한 규범을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원하는 행위를 얻어내도록 작동한다. 구성적 권력의 궁극적인 주요 관심사는 물리적 강제나 물질적 유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상대방의 정체성을 재구성할 것인가에 있다. 여기서 정체성의 재구성 과정은 설득과 동의의 의도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특정 행위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고안되지 않은 관례(rituals)나 담론(discourses)이 수용되는 결과로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성적 권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탈구조주의자 중에서도 특히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지식(power/knowledge)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Foucault 1980). 한편, 국제정치이론에서 이러한 푸코의 권력/지식은 리처드 애슐리(Richard K. Ashley)의 '탈(脫)인격적 권력(impersonal power)'의 개념화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애슐리는 지식이 구성되

8) 이러한 문제점은 스트레인지뿐만 아니라 다른 주류 국제정치이론가들의 권력론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조셉 나이(Joseph S. Nye, Jr.)의 연성권력(soft power) 개념도 실증주의적 또는 행태주의적 관점에서 파악된 구조적 권력을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Nye 1990: 2004).

고 재구성되는 간주관적 차원으로부터 인격적인 요소가 탈색된 구성적 권력의 개념을 도출한다. 세계정치의 다양한 영역에서 간주관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생성된 관례와 담론 등은 지배적인 어젠다 형성의 과정에서 특정한 문제들을 포함 또는 배제시킴으로서 권력을 행사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구성적 권력은 인격적인 요소를 개재시키지 않으면서도 체제 자체의 작동메커니즘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naturally)’ 행사되는 것이다. 애슐리에 의하면, 이렇게 간주관적으로 파악된 구조적 권력은 ‘...에 대한 권력(power over)’이 아니라 ‘...을 하는 권리(power to)’이며, 실천의 영역에 산재하는 ‘자연화된(naturalized)’ 권리이다(Ashley 1983; Guzzini 1993).

요컨대, 지식구조에서 작동하는 권력 메커니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인지가 개념화한 구조적 권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상에서 언급한 구조적 권력에 대한 논의들이 모두 고려된 입체적인 분석틀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구찌니는 각기 다른 구조적 권리의 동학을 파악하고 이를 국제정치이론의 시각에서 엮어내는 데 유용한 논의를 제공한다(Guzzini 1993). 구찌니에 의하면, 구조적 권리은 1) 간접적인 제도적 권리, 2) 비의도적 권리, 3) 탈인격적으로 창출된 권리 등의 세 가지 형태로 행사된다고 한다(Guzzini 1993). 이를 환연하자면, 구조적 권리은 제도(institutions), 이익(interests), 관념(ideas)의 세 가지 차원에서 상호작용하면서 현실 세계정치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파악된다.⁹⁾

결국 향후 정보화시대 지식구조의 연구에 남겨지는 과제는 이상의 세 가지 차원에서 파악된 구조적 권리이 실제 지식구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앞서 언급한 지식구조의 아키텍처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결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종합적 분석틀은 정보화시대 지식구조의 실체와 내용을 밝히는 향후의 연구에 중요한 개념적 자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여태까지 추상적인 차원에서만 제시된 지식구조와 구조적 권리에 대한 논의에 경험적 구체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정보화시대 지식구조의 사례를 간략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IV. 정보화시대 지식구조의 사례

정보화시대의 지식구조에 대해서 스트레인지 자신은 별다른 경험적 논의를 펼치지 않았지만, 스트레인지의 논지를 이어받은 몇몇 연구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앨런 러셀(Alan Russell)은 범용기술(generic technology)로서의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지식구조의 사례를 탐구하고 있다(Russell 1997). 범용기술이란 “경제의 넓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는, 동일한 속(屬)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혁신의 집합”을 의미한다(Russell 1997, 41). 이

9) 이 글은 관념(ideas) 변수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이익(interests)과 제도(institutions) 등의 삼자 간에 벌어지는 구성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구조적 권력을 탐구한다. 이러한 이익-제도-관념의 분석틀은, 비교정치학의 시각에서 본다면 ‘구성적 제도주의(constitutive institutionalism)’,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본다면 ‘구성적 현실주의(constitutive realism)’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단초를 보여주는 연구로는 Leander(2000)와 Blyth(2002)를 참조.

러한 범용기술은 세계정치에서 전략적 요지를 점하기 때문에 누가 이러한 범용기술의 생산과 확산 및 활용을 주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¹⁰⁾ 왜냐하면 지식구조에서 도구적 지식의 층위에 속하는 범용기술은 도구적 지식의 층위 중에서도 특정한 시기의 과학적·기술적·기능적 지식의 응집된 결과물인, 소위 ‘첨단기술(high-tech)’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그림1 참조). 따라서 누가 범용기술의 생산을 주도하고 그 확산 및 활용의 과정과 구조를 지배하느냐를 파악함으로써 도구적 지식의 층위뿐만 아니라 그 상하부 층위를 모두 포괄하는 지식구조 전체의 모습을 파악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러셀이 범용기술의 개념을 지오반니 듯시(Giovanni Dosi)의 기술패러다임(technological paradigms) 개념에 적용하여 지식구조의 도구적 차원과 상징적 차원의 관계를 탐구한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Russell 1997, 47). 기술패러다임의 개념은 문제의 설정 및 탐구의 형태, 자연과학으로부터 도출되고 선별된 원칙,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실행하는 정형화된 솔루션 등을 내포하고 있다(Dosi 1982). 따라서 기술패러다임이란 단순히 기술 혁신의 집합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러한 기술혁신을 성취하는 방식과 관련된 ‘제도표준(institutional standards)’까지도 의미한다(Kim and Hart 2001). 바로 여기가 기술패러다임에 대한 듯시의 논의가 스트레인지의 구조적 권력 개념과 만나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특정 사회의 제도적 배경 하에서 창출된 범용기술이 국제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기술을 뒷받침하는 제도표준의 수용 문제를 놓고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차원의 구조적 권력 메커니즘이 작동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범용기술을 중심으로 지식구조의 밀그림을 파악하는 시도를 한 러셀의 논의는 정보화시대의 물질적 기반과 이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관계적 권력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데 의미있는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셀이 들고 있는 범용기술의 사례는 스트레인지가 말하는 정보화시대 지식구조의 본질을 드러내 주는 적확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는 러셀의 논의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정보화시대의 기술에 대한 개념적 이해의 협소성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기술자원의 혁신에 초점을 맞춘 러셀의 논의는 기술적 지식의 ‘물질적 측면’을 강조한 근대적 기술개념¹¹⁾에 입각함으로써 정보화시대의 지식구조에 대한 시야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범용기술로서의 정보기술이 생성하는 구조적 권력을 논하면서도, 정작 정보기술 개념 자체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구조적 속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종전의 근대 산업기술과는 달리 정보기술이 지니는 가장 핵심적인 속성 중의 하나는 ‘자원적 소유개념’을 넘어서는 ‘구조적 공유개념’을 그 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근대 기

10) 러셀의 이러한 논의는 선도부문(leading sectors)과 세계정치의 패권변동을 연구를 연결시키는 국제정치학 내의 일련의 학자들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Gilpin(1987), Modelska and Thompson(1996) 등을 참조.

11) 근대적 기술 개념의 핵심은 테크네(techné) 형태로서 인간에 배태되어 있던 지식이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재산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물질적 소유의 대상으로서 파악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념적 형성은 17세기경에 이루어졌으며, 영어에서 근대적 기술을 의미하는 technology(*techné*와 *logos*의 합성어)라는 용어도 비슷한 시기에 출현하였다(Hart and Kim 2000).

술의 개념적 핵심이 소유할수록 가치와 권력이 증대되는 '소유적 지식(proprietary knowledge)'에 있다면, 정보기술의 핵심은 '공유적 지식(sharable knowledge),' 즉 널리 나누어 공유될수록 가치와 권력이 증대되는 종류의 지식에 있다. 물론 정보기술에서도 소유적 지식의 측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공유적 지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다만 두 가지 형태의 지식이 복합되면서 외적으로 발현되는 정보기술의 지식으로서의 성격은 근대적인 의미와는 상당히 다른 내용을 담게 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정보기술의 새로운 지식적 측면을 담아낼 새로운 용어로서 기술(技術, technology)과 지식(知識, knowledge)의 합성어인 기식(技識, technoledge)을 제안한다(Hart and Kim 2000; 김상배 2001a). 이하에서 상술하듯이, 이러한 기식으로서의 정보기술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례로서 정보산업에서 등장하는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문화콘텐츠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정보화시대의 지식구조에서 러셀이 논하는 것보다 더 문제시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식에서 비롯되는 다층적인 구조적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시대 지식구조의 실체와 거기에서 작동하는 구조적 권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는 기술표준이다. 기술표준이란 권위나 관습, 일반적 합의 등에 의해서 수립된 기술 분야의 행위규칙이다. 기술표준과 관련된 공유적 지식의 가치는 그 표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에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메커니즘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표준이 채택되어 공유될 때 생긴다. 기술표준에서는 호환성과 상호작동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기술 분야의 표준은 국가나 공식협회 및 국제기구들이 나서는 표준화(standardization)를 통해서 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법률적(*de jure*) 과정을 통해서 설정된 기술표준이 일종의 '간접적인 제도적 권력'의 의미를 가졌음은 물론이다. 근대 산업기술의 경우에 비해서 호환성과 상호작동성이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정보기술의 경우 표준화는 보다 더 중요하다(Hawkins et al. eds. 1995; Krislov 1997).

그런데 최근 정보기술에서 기술표준이 관심을 끄는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기술표준의 설정방식이 종전의 표준화로부터 사실상(*de facto*) 표준경쟁(standards competition)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Arthur 1996). 다시 말해, 최근 정보산업에서의 표준설정은 표준설정 자체를 놓고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표준은 앞서 언급한 '비의도적 권력'이 작용하는 물질적·제도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경쟁의 사례는 가전제품, 컴퓨터, 디지털TV, 이동통신 분야에서 발견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컴퓨터산업에서 IBM과 애플 간에 벌어진 컴퓨터 표준경쟁이다(Grindley 1995).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컴퓨터 운영체계인 윈도(Windows)와 인텔(Intel)의 두 단어를 합성하여 만든 '윈텔(Wintel)' 또는 '윈텔리즘(Wintelism)'이라는 용어는 표준경쟁의 결과로서 1980년대 초반 이래 PC표준을 장악하고 있는 두 기업의 구조적 권력을 상징한다. 여기서 윈텔이란 PC산업에 진입하려는 모든 참여자들이 지켜야 하는 '게임의 규칙' 이자 이들을 제약하는 '비의도적 편향'을 의미한다(Kim and Hart 2002).

한편, 윈텔리즘은 MS와 인텔의 구조적 지배라는 차원을 넘어서 윈텔의 성공을 뒷받침한 기술

패러다임, 즉 제도표준의 등장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서 앞서 언급한 상징적 차원의 구조적 권력에도 연결된다. 실제로 윈텔이 성공한 이면에는, 흔히 실리콘밸리 모델(Silicon Valley model)과 미국형 조절국가(regulatory state) 및 미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등으로 대변되는 제도적 배경이 작동하고 있었다(Hart and Kim 2002). 컴퓨터 산업 경쟁의 와중에 이러한 제도적 요소들이 국제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실리콘밸리의 업적을 이룩한 미국의 선례는 일종의 '선행모델(best-practice model)'로서 받아들여져 전 세계의 기업과 국가들이 모방하는 제도표준의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이러한 전파의 과정에서 '수입된 제도'에는 반드시 일정 정도의 상징적 지식이 묻어오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 윈텔리즘의 제도표준에 자국의 제도를 적응시키려는 과정에서 미국의 비즈니스문화나 나아가 미국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수용하는 형태의 구성적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이다(Kim 2002).

기술표준의 문제와 더불어 정보화시대의 지식구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는 지적재산권이다. 역사적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관념과 제도는 기술혁신의 성과를 보호하고 기술개발자의 동기를 유발하는 차원에서 등장하였다(Patterson 1968; Rose 1993). 특히 지적재산권은 이전에는 주로 공공재로서 인식되어 왔던 지식자원에 사유재의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근대적인 의미의 배타적 소유개념을 도입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자원을 축적하고 보호하는 '소유의 메커니즘'은 지적재산권 관련 규범을 확산·수용시키는 '공유의 메커니즘'과 교묘히 결합되면서 발현된다. 다시 말해, 지식생산자들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타자의 지식사용에 대해서 비용을 치르게 하고 자신들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회수하는 법률상(*de jure*) 방어메커니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허(patent)나 저작권(copyright)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는 지식생산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간접적인 제도적 권력'의 함의를 가진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규범이 보다 더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실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정보기술의 성격이 급속히 디지털화하면서 기술적 성과를 전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 반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정보기술이 역설계(reverse engineering)의 과정을 거쳐 쉽게 해제(decompile)되고 복제되는 것은 더욱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칩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법제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어 왔다(김상배 2002b).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인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가 수립되었고, 최근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관련 규정도 대폭 정비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정보화시대 지적재산권의 국제레짐이 세계정치의 장에서 기술개발자 측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하는 하나의 구조적 권력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물론이다(Sell 2003).

게다가 지적재산권의 국제레짐이 확산·수용되는 과정을 보면, 관념형성(ideational)의 차원에서 탈인격적으로 창출되는 구성적 권력의 메커니즘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서구 선진국들이 주

도가 되어 수립된 지적재산권의 국제레짐이 전통적으로 서구의 국가들과는 다른 독특한 지적재산권의 문화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부과되는 경우, 소위 ‘체제마찰(system friction)’이라고 부르는 문화정치적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Ostry, 1996). 그런데 이러한 갈등의 결과로서 개발도상국들이 WTO나 WIPO 등과 같은, 기술개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적재산권의 국제규범을 받아들이는 경우, 이는 서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법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인 동시에 인간의 노력과 보상 등에 대한 서구적 법사상 내지는 가치체계까지도 수용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과정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체성이 재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Hamilton, 1997, 243-245).

끝으로, 정보화시대의 지식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는 문화콘텐츠를 담는 미디어기술로서의 정보기술의 속성에서 비롯된다. 최근 들어 컴퓨터·통신·방송 등의 분야가 수렴되는 디지털융합(digital convergence) 현상을 바탕으로 하여 멀티미디어 관련 정보기술이 크게 발달하였다(Yoffie 1997). 활자매체의 등장 아래 텍스트나 음성 및 영상 미디어 등의 형태로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기술이 계속 발전해 왔지만, 최근에 등장한 멀티미디어는 이러한 모든 매체를 융합함으로써 콘텐츠 미디어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특히 이러한 콘텐츠 미디어의 발달은 단순히 양적인 정보처리의 증대라는 의미를 넘어서 질적인 정보처리 과정의 비약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미디어와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콘텐츠를 생산·전파·소비하는 메커니즘이 정보화시대 지식구조의 전면에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문화콘텐츠에 담기는 상징적 지식은 공유될수록 그 가치를 더하는 공유적 지식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 전파의 과정에서 탈인격적으로 창출된 ‘권력/기식(power/technoledge)’이 작동한다.

이러한 정보기술과 글로벌 문화산업의 만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와 할리우드(Hollywood)를 합성해서 만든 용어인, ‘실리우드(Siliwood)’가 있다. 실리우드는 지난 반 세기동안 글로벌 영화산업의 종주로 군림해왔던 할리우드의 스튜디오들이 실리콘밸리 IT기업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 문화패권을 재생산하고 있는 현상을 지칭한다(Hozic 1999). 구체적으로 실리우드의 현상은 영화제작에 컴퓨터 그래픽스와 같은 특수효과가 도입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근 국내외에서 흥행에 성공한 영화중에서 실리콘밸리에서 개발된 첨단 IT의 특수효과를 사용하지 않는 영화가 없을 지경이다. 이러한 실리우드의 등장은 기술의 우위가 문화의 지배로 전환되는 정보화시대 지식구조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엄청난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IT 특수효과로 포장된 실리우드의 생산물들은 한 때 쇠퇴하는 것으로 보이던 미국의 세계패권을 더욱 더 교묘한 형태로 재생산하는 구성적 권력의 장치로서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된다(Hozic 2001; Der Derian 2001).

그런데 실리우드에 힘입어 등장한 소위 ‘맥월드(McWorld)’에서 유통되는 지배적인 논리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문화(global culture)’라기보다는, 미국적인 가치와 문화규범에 맞추어 세계 각 지역의 문화를 재구성하려는, ‘아메리칸 스탠더드(American standards)’의 확산 메커니즘이다(Barber 1995). 실제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s)’라는 미명 하에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실리우드의 생산물에 담기는 내용을 살펴보면, 코카콜라, 맥도널드, 디즈니, 스타벅스

등으로 흔히 상징되는 미국의 대중문화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문화 분야의 표준을 설정하고 전파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문화수입국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문화 수출국의 의도에 맞추어 변형되는 구성적 권력 현상이 발생한다. 게다가 이러한 전파의 과정의 전면에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적 국제레짐의 제도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정보산업의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문화콘텐츠 등의 사례를 통해서 본 정보화 시대의 지식구조는 명실상부하게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미국은 도구적 지식과 지식소통 매개체 및 상징적 지식에 이르기까지 정보산업 분야 지식구조의 전 층위에 걸쳐서 지식패권을 행사하고 있다. 게다가 정보산업의 경우뿐만 아니라 여타 영역에 있어서도 미국은 정보·기술·지식의 창출과 확산 및 공유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새롭게 짜이는 글로벌 지식질서의 핵심에 서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주목할 것은, 미국의 지식패권이라고 할 때 이것은 영토국가로서의 미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라는 국가를 허브(hub)로 하는 다양한 행위자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스트레인지가 지적하였듯이, 이는 구체적인 영토성을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확한 기원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초국가적 '지식제국(knowledge empire)'으로서의 미국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보화시대의 지식구조에서 지식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측은 미국을 근거지로 해서 작동하면서 의도적, 비의도적, 그리고 탈인격적 차원의 구조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Strange 1996).

V. 맷음말

이 글은 정보화와 권력이동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영국의 국제정치학자 수잔 스트레인지가 제시했던 지식구조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고 있는 지식구조의 실체와 내용을 밝히는 작업을 펼쳤다. 우선, 이 글은 스트레인지의 개념화가 지식구조의 아키텍처와 작동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미흡함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함으로써 정보화시대의 지식구조를 이해하는 개념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 글은 정보산업의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문화콘텐츠 등에 대한 경험적 검토를 통해서 정보화시대의 지식구조와 거기에서 작동하는 구조적 권력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구체화시키고자 시도하였다.

이 글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보화시대의 지식구조에 대한 개념적 논의의 지평을 더욱 넓혀야 한다. 스트레인지 본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스트레인지의 지식구조 개념은 그 간결성이나 계통성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정치학계에 유용한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권력적 본질에 대한 철학과 사상 및 사회과학 일반의 연구에 비해서는 일천한 것이 사실이다(Strange 1994, 136). 또한 정보화시대의 지식구조에 대한 폭넓은 사례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에서 다룬 정보산업의 사례는 정보

화시대 지식구조 연구의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최근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의 활성화는 지식의 생산뿐만 아니라 그 활용을 둘러싸고 지식구조의 외연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현재 지식구조가 생산·금융·안보 등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보화시대의 세계정치에서 발견되는 지식구조의 사례는 도처에 널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연속선상에서 향후 정보화시대의 지식구조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를 한 가지 지적한다면, 현재 미국 주도의 지식구조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의 조짐에 대한 개념적·경험적 작업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의 지식패권에 도전하는 대항담론이 동아시아의 정보산업과 사이버공간에서 급속히 부상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 기식이라는 개념적 범주로 설정한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문화콘텐츠의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대항담론을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발견된다.

우선, 디지털융합 현상의 가속화와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컴퓨팅이 보편화되면서 PC시대에 뿌리를 둔 윈텔리즘에 도전하는 기술비전들이 생성되고 있다. 초창기 미국의 정보산업에서 주로 생성된 기술비전들은 거의 대부분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팅환경에서 PC기기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유선인터넷(wired internet)’의 비전들이었다. 이에 반해 1990년대 중반 이래 기존의 유선인터넷과 PC중심성을 허물려는 ‘무선인터넷(wireless internet)’과 유비쿼티(ubiquity)의 기술비전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항적 기술비전 형성의一面에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동아시아의 IT기업들이 포스트 PC기기와 디지털 정보가전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도전의 야심을 키우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대항담론의 등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모델로서의 ‘동아시아 경제모델’의 부활에 대한 논의도 피어나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변화이다(김상배 2002a).

또한 지적재산권의 분야에서도 미국의 기술개발자들이 중심이 되어 수립한 지적재산권 질서에 대한 대항담론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특허나 저작권의 과도한 전유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지면서 ‘베타적 권리(copyright)’로서의 근대적 지적재산권 개념에 대응하는 ‘정보공유운동(copyleft)’의 도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술개발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기존의 지적재산권 법제도에 대항하여 기술이용자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시민사회 진영의 결집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윈텔에 대한 대안적 운영체계로서의 리눅스(Linux)가 지난 몇 년간에 보여준 성장의 잠재력은 이러한 정보공유운동이 단순히 기술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한 관념 차원의 운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적재산권 진영에 반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이나 정부까지도 가세한 새로운 제도의 모색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김상배 2002b).

끝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미국 주도의 지식구조에 대한 대항담론이 동아시아의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는 실리우드와 같은 거대한 자본을 등에 업지 않고도 지식과 문화를 생산하는 새로운 모델이 실험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네티즌들은 실리우드와 같은 위계적 네트워크에서의 일방적 소비자가 아닌 자신들이 구성한 사이버공간상의 ‘싸이월드(cyworld)’에서 수평적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쌍방향적인 ‘생산적 소비자(prosumer)’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싸이월드’에

서 정보·기술·지식은 배타적 권리주장의 대상이기보다는 널리 나누어지는 공유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게다가 그들이 생산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콘텐츠에 담기는 내용에는, 007 제임스 본드나 램보가 등장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하고 테러리스트를 물리치는 '제국의 스토리' 보다는, 사이버판(版) 헤즈볼라와 알 카에다가 등장하는 '저항의 스토리' 가 등장할 가능성마저 있다(김상배 2004).

요컨대, 정보산업에서 대항담론은 포스트PC시대의 새로운 지식소통 매개체가 부상하면서 발생하는 지식구조의 균열을 틈타서 서서히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 할 점은 현재 출현하고 있는 지식패권에 대한 도전이 아직은 관념 또는 담론의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정보산업의 물적 기반은 여전히 미국을 허브로 하는 네트워크가 장악한 감이 없지 않으며, 이러한 지식권력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해서 기득권 진영은 온갖 종류의 구조적 권력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향후 연구는 이러한 패권과 대항 및 견제의 구도 속에서 부단히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시대 지식구조의 실체와 내용을 밝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상배. 2001a. “정보기술경쟁의 국제정치경제: 새로운 개념화의 모색.” 한국정치학회 편. 『정보사회와 정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오름, 305-330.
- 김상배. 2001b. “정보화시대의 거버넌스: 탈집중 관리양식과 국가의 재조정.” 『한국정치학회 보』. 35(4), 359-376.
- 김상배. 2002a. “세계표준의 정치경제: 미·일 컴퓨터 산업경쟁의 이론적 이해.” 『국가전략』. 8(2), 5-27
- 김상배. 2002b. “지적재산권의 세계정치경제: 미·일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2(2), 111-130
- 김상배. 2003. “정보기술과 국제정치이론: 구성적 기술론과 정보세계정치론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43(4), 33-58.
- 김상배. 2004. “문화산업과 정보문화.” 하영선 편. 『21세기 한반도 백년대계: 부강국가를 넘어서 지식국가로』. 서울: 풀빛, 149-160.
- Arthur, W. Brian. 1996. “Increasing Returns and the New World of Business.”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100-109.
- Ashley, Richard K. 1983. “Three Modes of Economis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7. June, 463-496.
- Bachrach, Peter, and Morton Baratz. 1970. *Power and Povert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rber, Benjamin R. 1995. *Jihad vs. McWorld*. New York: Random House.
- Bijker, Wiebe E., Thomas P. Hughes, and Trevor Pinch, eds. 1997. *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ical Systems: New Directions in the Sociology and History of Technology*. Cambridge, MA: MIT Press.
- Blyth, Mark. 2002. *Great Transformations: Economic Ideas and Institutional Change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stells, Manuel. 1997.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Malden, MA: Blackwell.
- Dahl, Robert A. 1957. “The Concept of Power.” *Behavioral Science* 2(3). July, 201-215.
- Der Derian, James. 2001. *Virtuous War: Mapping the Military-Industrial-Media-Entertainment in Network*. Boulder, CO: Westview Press.
- Dosi, Giovani. 1982. “Technological Paradigms and Technological Trajectories: A Suggested Interpretation of the Determinants and Directions of Technical Change.” *Research Policy* 11, 147-162.

- Foucault, Michel. 1980. *Power/Knowledge*. edited by M.C. Gordon. Brighton: Harvester.
- Gilpin, Robert. 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rindley, Peter. 1995. *Standards Strategy and Policy: Cases and Stor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uzzini, Stefano. 1993. "Structural Power: The Limits of Neorealist Power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7(3). Summer, 443-478.
- Guzzini, Stefano. 2000. "The Use and Misuse of Power Analysis in International Theory." Ronen Palan, ed. *Global Political Economy: Contemporary Theories*, 53-66. New York: Routledge.
- Hamilton, Marci A. 1997. "The TRIPs Agreement: Implications, Outdated, and Overprotective." Adam D. Moore, ed. *Intellectual Property: Moral, Legal and International Dilemma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Hart, Jeffrey A. and Sangbae Kim. 2000. "Power in the Information Age" Jose V. Ciprut, ed. *Of Fears and Foes: Security and Insecurity in an Evolving Global Political Economy*, 35-58. Westport, Conn.: Praeger.
- Hart, Jeffrey A. and Sangbae Kim. 2002. "Explaining the Resurgence of U.S. Competitiveness: The Rise of Wintelism." *The Information Society* 18(1). February, 1-12.
- Hawkins, R, R. Mansell, and J. Skea, eds. 1995. *Standards,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The Politics and Economics of Standards in Natural and Technical Environments*. Aldershot, UK: Edward Elgar.
- Hozic, Aida A. 1999. "Uncle Sam goes to Siliwood: Of Landscapes, Spielberg and Hegemony."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6(3). September, 289-312
- Hozic, Aida A. 2001. *Hollywood: Space, Power and Fantasy in the American Econom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Isaac, Jeffrey C. 1987. "Beyond the Three Faces of Power: A Realist Critique." *Polity* 20(1). Fall, 4-31.
- Kim, Sangbae and Jeffrey A. Hart. 2001. "Technological Capacity as Fitness: An Evolutionary Model of Change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William R. Thompson, ed. *Evolutionary Interpretations of World Politics*, 285-314. New York: Routledge.
- Kim, Sangbae and Jeffrey A. Hart. 2002.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Wintelism: A New Mode of Power and Governance in the Global Computer Industry." James N. Rosenau and J.P. Singh, ed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Global Politics: The Changing Scope of Power and Governance*, 143-168. Albany, NY: SUNY Press.
- Kim, Sangbae. 2002. "Hardware Institutions for Software Technologies: The Japanese Model

-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Personal Computer Industry."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9(1). June, 17-36.
- Krasner, Stephen D. 1985. *Structural Conflict*.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rislov, Samuel. 1997. *How Nations Choose Product Standards and Standards Change Nations*. Pittsburgh, PA: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Lawton, Thomas C., James N. Rosenau, and Amy C. Verdun, eds. 2000. *Strange Power: Shaping the Parameter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ldershot, UK: Ashgate.
- Leander, Anna. 2000. "A Nebbish Presence: Undervalued Contributions of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to IPE." Ronen Palan, ed. *Global Political Economy: Contemporary Theories*, 184-196. New York: Routledge.
- Lukes, Steven. 1974. *Power: A Radical View*. London: Macmillan.
- Mackenzie, Donald, and Judy Wajcman, eds. 1985. *The Social Shaping of Technolog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Modelska, George, and William R. Thompson. 1996. *Leading Sectors and World Powers: The Coevolution of Global Politics and Economics*. Columbia, S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 Mytelka, Lynn K. 2000. "Knowledge and Structural power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omas C. Lawton, James N. Rosenau, and Amy C. Verdun, eds. *Strange Power: Shaping the Parameter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39-56. Aldershot, UK: Ashgate.
- North, Douglas,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ye, Jr., Joseph S. 1990.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asic Books.
- Nye, Jr., Joseph S.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 Ostry, Sylvia. 1996. "Policy Approaches to System Friction: Convergence Plus." Suzanne Berger and Ronald Dore, eds. *National Diversity and Global Capitalis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Patterson, Lyman Ray. 1968. *Copyright in Historical Perspective*. Nashville, Tennesse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 Porter, Tony. 1999. "The Late-modern Knowledge Structure and World Politics." Martin Hewson and Timothy J. Sinclair, eds. *Approaches to Global Governance Theory*. Albany, 137-155. NY: SUNY Press.

- Rose, Mark. 1993. *Authors and Owners: The Invention of Copyrigh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ussell, Alan. 1997. "Technology as Knowledge: Generic Technology and Change in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Michael Talalay, Chris Farrands and Roger Tooze, eds. *Technology, Culture and Competitiveness: Change and the World Political Economy*, 41-57.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ell, Susan. 2003. *Private Power, Public Law: The Glob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inmo, Sven, Kathleen Thelen and Frank Longstreth, eds. 1992.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ange, Susan. 1991. "An Eclectic Approach." Crag N. Murphy and Roger Tooze, eds. *The New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35-48. Boulder, CO: Lynne Reinner.
- Strange, Susan. 1994. *States and Markets*. Secon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Pinter.
- Strange, Susan. 1996. *The Retreat of the State: The Diffusion of Power in the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ffler, Alvin. 1990. *Power Shift*. New York: Bantam Books.
- Tooze, Roger. 2000, "Ideology, Knowledge and Power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omas C. Lawton, James N. Rosenau and Amy C. Verdun, eds. *Strange Power: Shaping the Parameter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75-194. Aldershot, UK: Ashgate.
- Yoffie, David B, ed. 1997. *Competing in the Age of Digital Convergence*.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